

# 성인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식도, 지식, 노출저감화 행동에 관한 연구

김미라\*<sup>1)</sup> · 김효정<sup>2)</sup>

<sup>1)</sup>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sup>2)</sup>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생활상담복지학부

## Recognition, knowledge, and behaviors to decrease exposure toward endocrine disrupter among adult consumers

Meera Kim\*<sup>1)</sup> · Hyochung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Food Science &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2)</sup>School of Human Counseling & Welfare, Inje University

### 1. 서론

오늘날 눈부신 과학문명의 발달과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으나 산업 발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및 각종 공해로 새로운 위해물질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야생동물의 암컷화, 수정률 감소, 부화율 감소, 호르몬 이상 분비 등 생태계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자 수 감소, 성기 기형의 증가, 호르몬 관련 암의 증가 등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작용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위해성은 극히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우리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에서 나온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 스스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식도, 지식,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노출 저감화 행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본 조사는 2008년 6월에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2.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14.0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의 행동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문항의 응답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표집되었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8.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이 비슷하게 표집되었으며, 월가계소득은 300만~400만원 미만(33.1%), 200만~300만원 미만(26.7%), 400만원 이상(24.3%) 순이었다. 응답자의 75.7%가 기혼이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3%이었다.

#### 3.2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도

응답자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57.3%가 '대체로' 또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연령별로는 40대, 기혼자인 경우,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대체로' 또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3.3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사람에게 주는 위험에 대한 인식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사람에게 주는 위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2%가 ‘대체로’ 또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대체로’ 또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3.4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본인 및 가족에게 미칠 피해에 대한 불안 정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미칠 피해에 대한 불안 정도는 응답자의 71.6%가 ‘대체로’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였고, 15.8%가 ‘그저 그렇다’, 9.4%가 ‘전혀’ 또는 ‘별로’ 불안하지 않다, 3.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 연령별로는 30대, 월가계소득이 200만~300만원 미만, 그리고 기혼자인 경우 ‘대체로’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3.5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를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 라디오’(76.6%)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신문, 잡지’(9.5%)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대중매체로부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웠는지 질의한 결과 평균값이 2.927점으로 중간값인 3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응답자들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획득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웠는지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033점으로 중간수준이었다. 한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66.8%가 ‘텔레비전, 라디오’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13.8%)’, ‘신문, 잡지(7.3%)’순이었다.

### 3.6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72.13%이었다. 문항별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는 것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나와 좋지 않다(94.68%)’이었고, 그 다음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식기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나오므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94.19%),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나온다’(92.03%)이었다.

### 3.7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에 대한 행동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에 대한 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총 23개 문항의 평균값은 5점으로 환산했을 때 3.366점,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59.154점으로 앞에서 살펴본 지식 수준에 비해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에 대한 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8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학력,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도이었다. 즉 고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연령,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에 대한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많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에 대한 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결과, 성인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심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수준과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성을 알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노출 저감화를 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